

<신입작품 시놉시스>

큰 주제 : 본인 스스로 결정하며 살자.

소재 : 핸드폰 카톡(익명이), 대학 발표과제

장르 : 교훈

분위기 : 가볍지는 않게.

예상 분량 : 10분 이하

등장인물 : 주인공(유나), 동기1, 동기2

장소 : 버스, 인문대 자판기 앞,

#인트로, 버스 안(저녁)

주인공이 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.

카톡화면 확대.

주인공은 "나 좀 빨리 도와줘."라고 보내냈고, 상대방은 읽지 않았는지 1이 계속 있다.

주인공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끄고 창에 기대다.

*타이틀 띄우기

#1 인문대 자판기 앞(낮)

음료수 두 개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유나.

핸드폰을 들어 잠시 카톡을 하다가, 자판기를 누르고 음료수를 뽑는다.

그 때 뒤에서 유나에게 말을 거는 동기1.

동기1 : 유나야 안녕.

유나 : 어, 안녕.

동기1 : (유나의 핸드폰을 슬쩍 보고)'대신 결정해드립니다'...? 이게 뭐야?

유나 : 응? 아 그냥, 별거 아냐. 나 먼저 들어갈게.

대충 얼버무리며 종종걸음으로 강의실로 들어가는 유나.

#2 강의실(낮)

강의실에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는 유나.

잠시 뒤 동기1이 들어와서 유나의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는다.

동기1 : (수업들을 준비를 하면서) 아 참, 유나야. 너 이번 조별과제 우리랑 안 할래?

유나 : 너희랑?

동기1 : 응, 채영이랑 같이.

유나 : 어, 잠깐만...

유나가 핸드폰을 두들기고, 동기1에게로 고개를 돌린다.

유나 : 좋아, 하자.

#3 회의장소(낮)

유나와 동기1, 동기2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.

발표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지 토론하는 동기1과 동기2.

유나는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만보다가 핸드폰을 한다.

핸드폰에 빠져드는 유나를 클로즈업.

동기1과 동기2의 말소리가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진다.

동기2 :유나야. 유나야!

유나 : (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) 어, 어.

동기1 : 너는 주제 뭐가 나온 것 같애?

핸드폰 화면을 다시 슬쩍 보며 좀 뜸들이는 유나.

유나 : 음... 난 이거. (고개를 들어 동기1과 동기2를 본다) 선택이론!

#4 복도(낮)

가방을 챙기고 복도를 걷는 유나, 동기1, 동기2.

동기1 : 아 맞다. 우리 역할 정해야지.

동기2 : 나 피피티.

동기1 : 유나 너는?

유나 : 나는 남는 거 할게.

동기1 : 음 그럼 내가 자료정리 할테니까 너는 설문지 돌릴래?

유나 : (고개 끄덕이면서) 그래.

동기2 : 발표는? 발표하는 사람은 가산점 준다는데.

동기1 : 어.....(말끝을 흐린다)

동기1 뒤로 유나가 핸드폰 두드리는 거 포착.

유나 : (핸드폰에서 시선 떼고) 발표 내가 할게.